

송아지 한마리 1만원... 축산농 한숨만

〈생후 1주일 초유떼기 젖소〉

나주·함평 등 농가들 사료값 부담에 키울수록 손해

가격 폭락 도미노 현상... 정부지원 특별대책 시급

최근 젖소 수송아지 한 마리가 1만 원에 팔리는 등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월이후 소값 파동이 요동치면서 최근 도내 나주와 함평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젖소 수송아지가 1만원에 출하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특별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28일 전국 젖소 송아지 출하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나주를 비롯 강원도 춘천, 충남 태안, 경북 영천과

경주 등지에서 1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한·미 FTA타결로 미국 및 호주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농가들이 심리적 불안과 전반적인 소값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출하를 부추기고 있다. 1만원에 거래되는 젖소 수송아지는 생후 1주일 되는(일명 초유떼기) 25~30kg 정도로, 일반 한우 송아지에는 달리 40일 이상 대응우를 먹

여(분유떼기) 길라야 해 그만큼 사료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젖먹이 송아지로 전문기술과 경험자 아니면 폐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농가들이 사육관리 예의를 느껴 대부분 출생 후 초유떼기로 잔값에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나주시 다시면에서 젖소 120두를 사육하고 있는 홍양석(54)씨는 “초유떼기 송아지를 분유떼기까지 2개월 사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분유대 8만원을 포함, 자유급식 사료대와 약값 등 15만원에서 2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사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가들이 송아지 사육을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젖소농가들은 한·미 FTA 협정 이전까지만 해도 초유떼기 송아지가 3만원에 거래됐으나 지금은 1만원으로 떨어져 사육하려는 농가들이 없다며 정부당국을 원망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젖소 송아지 가격의 도미노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젖소 송아지를 마리당 30만원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전반적인 소값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겨세 700kg 한우 산지가격은 500만원에서 67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강진 소장 해제도서 판매전 인기

강진군민들이 최근 군 도서관이 마련한 '소장 해제도서 판매전' 행사를 찾아 책을 고르고 있다. 군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독서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고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2~3회 판매전을 열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나주배 브랜드화

한글·영문

지리적 표시 등록

나주 배가 지리적 특성을 활용,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리적 표시'에 등록됐다. 1일 나주시와 배농협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한글(나주 배)과 영문(Naju Pear)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 현지 실사 등을 마쳤다. 표시제 등록 신청에는 나주 배 농가 1850여명이 참여했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한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의 품질 향상과 지리적 명성을 키워 생산자 소득을 증대하는 제도로 지적재산권이 보호된다. 배 품목에서는 울산 배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면 '나주 배'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 해외 수출 등에 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 지역은 2600여 농가가 2700여ha의 배를 재배, 전국 생산량의 18%가량인 연간 7만t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은 전국 제1호인 보성 녹차(2002년 1월)를 비롯해 고흥 유자, 진도 홍주, 담양 딸기 등 농산물과 가공품(17개), 장흥 표고버섯, 영암 감 등 임산물(6개) 등 23개에 이르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농어촌공사 나주 만봉호 독농이기사업장

50년생 소나무 수삽그루 밀반출

나주시 봉황면 만봉호 독농이기사업장에서 수천여만원 상당의 소나무가 불법으로 밀반출돼 말쑥이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만봉호 독농이기사업현장 일대 야산에서 50여 년생 소나무 46그루 가량을 불법 반출한 마을 주민 A(62)씨와 조경업자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경부터 10여 일간 독농이기사업에 편입돼 산

지전용 허가과 용지매수 절차가 진행 중인 봉황면 만봉리 산 185번지 일대로 문중 소유 산지에서 소나무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사업지구내 소나무를 반출해 인근 400여m 떨어진 곳에 특정 장소에 식재하는 과정에서 산림 1502㎡(450여 평)를 훼손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나주시는 만봉호 독농이기사업 주민대책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A

씨와 전문 조경업자들이 결탁해 중장비를 동원해 산지 소유주 몰래 소나무를 캐낸 것으로 확인,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산림 사업현장 관리감독권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5개월 동안 이 같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등의 비주기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자 관계자는 “최초 원인행위 당시에는 전혀 몰랐으나 이후 알게 돼 과정과 절차를 거처도록 제지했다”며 “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인 만큼 신고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임성훈 나주시장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해낼 것”

“시민들과 함께 나주의 변화를 확고하게 다져가겠습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올해 시정의 기본 방향으로 ‘변화가 지속되는 시장’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그동안의 투자유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시장을 펼쳐겠다”며 “교육과 농업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더욱 대담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올해 시장은 혁신도시와 관련된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고품질 교육 인구 유입 유도

영산강 관광벨트 조성 추진

시민과 함께 나주발전 박차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나주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고 5년간 10억원을 투입해 교육연구비와 교재 구입비 지원, 학교장 공모제 등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한 교육정책을 펼친다. 쪽업색을 중심으로 한 천연염색 산업 역시 체험위주에서 탈피,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 문화가 흐르는 영산강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우습제 생태관광 ▲영산강림 풍류락도 탐방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임 시장은“포스트 영산강 시대”를 맞는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잘 가꾸진 영산강 수변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주변의 관광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의 매력도와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시장의 이 같은 의욕은 지난해 28개 기업과 4916억의 고용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대전 이남의 친환경 농산물의 거점이 될 친환경 유통센터 확정 등은 두드러진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임 시장은 “과거 천년 목(牧)문화의 영화를 되살릴 영산강 생태대천 사업의 명소화를 통해 나주의 미래비전을 확실하게 다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임시장은 “지난해 9월 나주시가 전국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그동안 착실하게 다져온 투자유치의 결실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임 시장의 민선 5기 1년 6개월간의 시정을 놓고 시민들 사이에 CEO 출신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어 임 시장은 이 때문에 시민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임 시장은 “내년은 총선과 대선으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에 따른 갈등이 다양하게 분출될 것”이라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나주의 미래를 밝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정철현기자

강진군, 전임군수 장학재단에 선심성 예산

18억원 끼워 넣고 저소득층 급식비 삭감... 일부 군의원들 반발

강진군이 예년에 없던 교육사업비 18억원을 추가 배정해 일부 군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05년부터 황주홍 전 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던 (재)강진군민장학재단에 매년 군비 10억원 등 지금까지 85억원을 출연했다. 또 군은 내년까지 누계 총 10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기로 하고 부족분

15억원 이외에 추가로 18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강진군의회는 최근 예결위에서 33억원으로 늘어난 군 교육사업비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K 군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위날기 예산’을 보는 것 같다”며 예결위의 한통속 심의를 비판했다. 특히 전임 군수이자 장학재단 이사

장의 장학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된 반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비 보조분담금 980여만원은 전액 삭감돼 대조를 이뤘다. 보조분담금이 삭감됨에 따라 관내 학교우유 급식비로 지원받게 되는 국비 1억원도 함께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학교당국과 학부모,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다’며 군의회 예결위원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2011년 신제품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민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백문트
나주영행

50m

SK주유소

대산프리모가발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문어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
제초창

롯데
월성

코카
콜라

해태
제과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금광
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